

大學에서의 文學教育의 方向

金 炳 旭

(忠南大 國文學科 副教授)

I

1980년의 教育改革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大學은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大學은 그 양적인 팽창에 상응하는 질적인 확충은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비단 施設面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大學教育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인 低下現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오늘의 大學이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특히 창조적인 예술분야에 속하는 文學에 관한 교육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大學 卒業定員制 이후 어떤 면에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學點 위주의 공부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文學教育의 문제를 전반적인 大學교육의 문제와 결부시켜 다루어야 하며, 아울러 문학이란 세계에 대한 總體的 認識이란 측면에서 역사·문화·사회적 여러 국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최근의 경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文學教育을 생각할 때 같이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人文科學에서 文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한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문학은 무형의 밑바탕이 된다. 사실 중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접어두더라도 대학의 敎養國語 교과서 그 외 교양선택 과목에서 문학은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學社會에서 문학은 경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제한된 지면이지만 필자는 大學교육에서 文學教育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여 서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점점 대학의 敎科課程이 교양과목 위주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문학교육은 교양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건일 것이다.

II

문학은 언어를 그 매체로 하는 言語藝術이다. 언어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문학은 다른 예술하고 뚜렷이 구분된다. 문학은 언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순화시킨다. 더 나아가 문학은 인간 삶의 한 指標를 마련해 준다. 우리의 일상적 삶이란 실제로 價値 中立的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에는 어떤 면으로든지 가치가 표명되어 있다. 따라서 문학은 우

리에게 인간의 참다운 진실을 일깨워 준다.

사실 개개의 文學作品은 극히 개성적이다. 그러나 그 전체는 인간의 보편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삶이란 자연 내지 우주와의 조화에 있다고 할 때 문학이 표방하는 궁극적 目標도 바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個別 作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개성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다양한 국면을 깨닫게 한다. 현대는 흔히 개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우리에게 개성을 일깨워 준다. 그러한 개성을 통하여 인간은 그 存在價値를 가지게 된다.

대학교육은 普通教育과는 달리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의 언어, 제도, 이념 등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학도 大衆教育의 성격을 띠어 가고 있음에 대해 당황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우리의 대학들이 우리 社會의 發展에 맞추어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教育制度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현실을 수용하여 왔기 때문에 대학도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특히 수강인원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文學教育은 넓게 보아 문학창작의 교육이 아니라 作品의 理解, 다시 말해서 독자의 반응에 대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개성 못지 않게 독자의 개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수강인원은 교육의 질을 자연히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학생의 개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외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의 本考査가 없어진 후에 입학한 학생들과 그 이전의 학생 사이에는 文學의 理解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어떤 면에서 객관적 答案지 작성으로 6년 동안 길들여진 신입생에게 문학의 主觀性을 설명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학력고사나 내신성적만으로 전국 대학의 순서가 매겨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학작품의 개성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문학이 가장 고도의 言語造作이라 할 때 요세의 대학 신입생들은 우선 처음부터 당혹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表現力이 없어도 객관식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의 올바른 이해는 언어의 이해, 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밀반침되어야 가능하다. 하나의 작품에 대한 解釋方法도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 명확한 하나의 答案을 작성하도록 길들여진, 학생들은 문학작품에서 획일화된 思考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적응력이 없어지고 만다. 바로 이러한 점이 대학 자체의 施設未備로 인하여 충분한 여건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도의 상상력을 통한 人間性의 發見이란 내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教育環境의 改善이란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 다만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 교육환경의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문학교육도 그 교육적 특성에 맞게 制度的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학은 그 성질상 大衆教育은 아니다. 따라서 수강인원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중·고등학교시절의 表現力의 결손을 메꿀 수가 있다.

문교부의 모범적 강의계획서에 보면 讀書課題가 필수적이다. 문학교육에 있어서 독서과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학생수에 비해서 도서관 시설은 크게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독서과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添削指導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과다로 인하여 그러한 지도가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히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현실의 여건이 讀書指導를 제약하고 있다. 문학교육은 치밀한 독서과제를 통하여 오히려 강의시간에 教授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독서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수강 인원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문학교육의 質的 成就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 독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도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 없이 어려운 책을 必讀圖書라고 선

정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읽어서는 안 될 책마저 선정해 놓는 일이 있다. 이것은 독자가 교과과정과 遊離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경우에도 강의내용과 등떨어진 讀書課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의의 진행과 참고도서의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일 것이다. 대학에서의 문학교육에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국면을 고려하여 참다운 독서의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III

文學은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을 총체적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單一한 定義를 내리기는 무척 어렵다. 그리고 문학을 인식하는 방법도 자연히 수없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문학의 연구는 이러한 여러 국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일이 곧 文學研究인 것이다.

문학은 이처럼 인간의 모든 면을 收斂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 역사, 사회, 심리 등등의 인접 人文科學의 方法論으로부터 부단한 침해를 받아 왔다. 이것은 마치 아편전쟁 후의 중국 매륙이 열강들에 의해서 分割, 占領된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레도 문학의 영역은 의연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문학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의 방법론의 독단으로 문학의 모든 분야가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문학은 自由主義 精神의 발현인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독단적 사고로 연구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흔히 教育의 目標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문학교육은 다분히 어떤 한 방법론을 따르기 쉽다. 그러나 문학 자체의 本質을 볼 때 그것은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문학교육은 바로 학생 스스로 문학작품을 통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다양한 作品世界를 이해하여 거기에 깃들여 있는 휴머니즘과 자유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巨視의 目標을 설정해야 문학교육은 대학생의 원대한 교양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다.

간단한 意思疏通에 있어서도 상황과 맥락이 중

요한 뜻을 한다. 어떤 면에서 하나의 작품은 가치중립적이다. 독자가 작품을 어떠한 맥락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비로소 가치를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自足性과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학교육이 요망된다. 그러면서 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우주론까지 확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文學의 實體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한 국면만 강조하게 될 때 이것 또한 문학의 秩序를 거스르게 된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듯이 문학의 해석이나 비평도 내적·외적 여러 관계속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문학 연구는 주로 작자와 작품과의 關係의 解明, 작품의 構造 해명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독자에 의하여 創造가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체인 씨앗과 같다. 따라서 어느 토양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成長과 生命이 제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해석에 있어서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 중점을 두자는 讀書批評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認識의 主體로서 독자의 몫이 문학작품의 비평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은 바로 讀者의 開發에 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하나의 작품에 대한 수많은 이해와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문학교육은 각각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세계뿐만 아니라 개별 독자들이 가지는 個性을 최대한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견 이러한 주장은 無秩序를 뜻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인식을 배제하고서는 진정한 문학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교육은 「metacriticism」으로 흘러야 하고 획일주의를 지양한 自由主義를 標榜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 때문에 문학교육에 있어서 교수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소위 討論式 講義를 지향해야 한다.

점점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어 가면서 인간은 거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 科學 文明은 인간을 여러 제약에서 해방시켜 주었지

만 고귀한 인간성을 代價를 현대인은 독특히
 쳐두고 있는 셈이다. 人間性的 回復이란 말이 많
 이 거론되는 것도 현대인이 집단적으로 非人間
 化되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가치중립적인
 과학은 그 자체로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킬 수 없
 다. 오히려 인간 스스로 과학을 비인간화의 價
 值體系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문학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즉
 인간의 가치가 어떤 기능적인 수단으로 간주되
 고 있는 현실에서 문학을 통한 人間の 蘇生이라
 는 當面課題를 문학교육은 떠맡게 된 것이다.

인간에게 만약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이 없
 다면 그것은 죽음이나 다름 바 없다. 대학생의
 多數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어 보이는
 현재에 있어서 비단 문학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학문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뚜렷한 價値觀은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
 어도 내일에 대한 밝은 展望을 가지도록 모든
 인문과학은 힘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요즈음의 대학생들의 생각이 즉흥적이고 근시안
 적이며 충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된 緣由
 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大衆教
 育을 지향하다 보니 대학생 개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학교육은 이러한 점
 에도 배려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 소생
 되는 자신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IV

현실을 무시한 교육은 하나의 白日夢에 지나

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교육은 空洞
 이다. 변화하는 대학사회를 볼 때 그 변화를 어
 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하는 問題意識을 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고정적인 관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가령 「문학의 이
 해」라는 과목을 文科生보다는 오히려 理工系 학
 생들에게 필수로 과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다. 그리하여 機能的인 側面만을 강조하는 그 방
 면의 학생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며 삶의 폭이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토록 해 보는 것도 좋
 을 것이다. 결국 생각하면 대학교육 자체를 어
 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문학교육도 결정되지만
 人間性的 回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인간
 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극히 상
 식적인 말이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
 지 않는다. 대학교육에서 앞으로 부단히 시정되
 어야 할 여러 문제가 많겠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곧 그들의 自律性和 個性을 존중하는 방
 향에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었으
 면 한다.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해석의 주
 체인 독자의 자율성과 그 해석의 능력을 함양하
 는 것이 중요한 課題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文化的 觀點에서 인간을 이해한다
 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전
 체문화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문학교육은
 이 양자의 觀點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능하게 해
 준다. 문학교육은 다양함 속에서의 조화를 추구
 하는 것이지 획일화된 질서를 바라지 않는다. *